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월 5일(주일) 제1277호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 '2020년 선교헌금 작성'
오늘(5일)과 12일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동참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표어로 내걸고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 하는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그 포문은 '2020년 선교헌금 작성' 이 연다.

오늘(5일)과 다음 주일(12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와 해외 비전교회에서 2020년 선교 헌금 작정을 실시한다.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 기부를 선택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2020년 선교헌금 작성은 예배에서 나눠주는 작성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증액, 헌금봉투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체크하면 된다. 자동이체

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25일이다.

헌금봉투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작성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에도 표시해야 한다.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로 후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해당란에 체크하면 된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이주민, 난민 선교 집중, 선교지 교회의 자체 선교 협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제주 Acts29호련센터 완공',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재배치', 'TIM-Japan 개소', '세네갈 본나바 마을 농업소득 증대' 등의 사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른 선교 헌금 지출은 선교사 후원 52%(60억 원), 선교사

역비 36.3%(42억 원), 기관지원 8.4%(9억8천만 원), 운영비 3.3%(3억8천만 원) 등이었다.

김홍주 목사는 "선교지에서는 후원과 중보기도도 좋지만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2020년 선교헌금 작성에 이어서는 목회사관학교(1월 20일~23일), 순장영성수련회(3월 7일), 고난주간 심야예배(4월 6일~10일), 러브소나타 야마카타(6월 3일~4일), 하용조 목사 9주기 추모기간(7월 27일~8월 1일), The One 전국대학청년수련회(8월 12일~13일), 부흥축제(10월 21일~23일), 러브소나타 미야지키(11월 10일~11일), 임직식(11월 28일)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2-3215-2616(선교헌금 작성)

/ 정현주, 김영선 기자

CGNTV와 함께 도전하는 성경통독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CGNTV와 함께 도전하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CGNTV가 공동체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G&M글로벌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와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를 방영한다.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실천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출연해 공동체 성경읽기의 유익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1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40분에 방영된다.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는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해서 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성경 1독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배우와 성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6시 40분, 주일은 오전 6시 20분에 방영된다.

'C. 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1월 13일 서빙고 경찬홀

두란노 창립 40주년 및 CGNTV 개국 15주년 특강 'C. 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1월 13일(월)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선교관 5층)에서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원이다. 내일(1월 6일)까지 등록하면 1만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내선 5번)

2020년 주일예배 개편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Public Reading of Scripture)

2020년 1월 둘째 주(1월 12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가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시면 신약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누가복음 제외).

캠퍼스	예배시간
서빙고	주일 7부 예배, 오후 9시
양재	주일 7부 예배, 오후 9시
부천	주일 6부 예배, 오후 7시
수원	주일 6부 예배, 오후 7시
대전	주일 6부 예배, 오후 7시
남양주	주일 4부 예배, 오후 7시
평택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
강동	주일 4부 예배, 오후 4시
양지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 30분

* 이번주(1월 5일) 신문은 '2020년 온누리교회 조직도 제작관계'로 8면 제작했습니다.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복음 2:1~12(1월 6일 본문)

본문 주제: 영광(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영상제목: 목마름의 회복- 이기복 목사

내용: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영의 목마름을 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씀과 예

배가 회복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적용질문: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최우선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경험한 은혜들이 있다면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2020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 선교지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

추방,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정로, 장순애 선교사 부부의 고백

10년 동안 사역은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남아시아 H국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2018년 6월 남편 이정로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다. 졸지에 아내 장순애 선교사와 자식 같은 현지 아이들을 선교지에 남겨둔 기러기 아빠가 신세가 됐다. 선교지에서 섬기던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사역을 이어가기로 하고 장순애 선교사는 그곳에 남고, 이정로 선교사는 인접국에서 아내를 도왔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추방,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정로, 장순애 선교사와 아웃리치를 왔던 한 성도가 함께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게 되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정로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맞춤형도집회 ‘비상구’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부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갔다. 남아시아 H국과의 인연은 2005년 시작되었다. 아웃리치에서 “다시 이 땅에 오겠다”는 약속이 밀알이 되었다.

“젊었을 때 고시공부를 오래 해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선교를 나가야겠다는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짝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운명적으로 아내 장순애 선교사를 만났어요.”

장순애 선교사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고 남아시아 H국에서 십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잠시 쉬고 있었다. 부친 온누리교회 한 성도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그 달콤한 신혼시절을 선교지에서 보냈다.

“신혼 때 같이 훈련받고 남아시아 H국으로 파송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그 나라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언어공부도 했어요.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공동숙소를 쓰다가 결혼해서 둘만의 가정을 꾸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꿈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I종족과의 만남 그리고 토요 성경교실

2009년 남아시아 H국으로 파송 받아 2년 동안 언어와 문화 훈련을 끝내고 현지 리서치를 하다가 I종족을 만났다. I종족은 남아시아 H국의 토착 원주민으로 주로 차 밭 일을 한다. 가장 하층민 계급에 속한다. H국 북부 지역에 4~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이정로, 장순애 선교사 부부는 남아시아 H국 I종족이 거주하는 한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을 복음화 시켜서 잘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곳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변화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성경교실을 열고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주민 대다수가 힌두교도였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녀들을 토요 성경교실에 보냈다. 처음에는 아이들 한두 명 씩 모였는데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나중에는 이백 명이 넘

는 아이들이 출석할 정도로 토요 성경교실 규모가 커졌다.

“토요 성경교실에 오면 일단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신나게 뛰어 놀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어요. 아무리 힌두교인 부모들이라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간식도 잘 먹으니까 아이들을 토요 성경교실에 보내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기숙센터를 세웠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 고아, 조부모와 사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하나둘 모여 함께 살았는데 나중에는 15명이나 됐다. 코흘리개 시절에 왔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대학교까지 진학했다.

고향 같은 선교지였는데...

“그 마을에는 8학년 이상의 학교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간 게 그 마을에서 첫 번째 대학진학이었으니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대학생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라주’가 그 마을에서 나온 첫 번째 대학생이다. 알코올중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라주를 어릴 때 버리고 떠나버린 어머니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토요 성경교실에 오면서 이정로, 장순애 선교사 부부가 돌보기 시작했다. 라주는 지금 전도자의 꿈을 품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마을에는 라주처럼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싶어서 선교센터를 건축할 예정이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선교베이스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선교센터 설립하는 일이 꽤 많이 진척된 상태였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치료차 나오는 길에 H국 공항에서 비자가 취소되었어요.”

이정로 선교사는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국에서 긴 시간 추적 끝에 그가 선교사임



동거동락한 선교지 아이들과 이정로, 장순애 선교사(뒷줄 오른쪽에서 2,3번째).

을 눈치 채고 추방을 한 것이다. 비자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곳이 고향이나 다름 없는데 다시는 고향에 못 가게 됐잖아요. 가족들도 거기 있는데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 은퇴까지 10년 정도 남았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그곳의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리까지 잡겠다면서 그때까지만 고생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내 장순애 선교사의 비자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장순애 선교사에게도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고려해서 철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종 ‘그렇게 위험하면 철수하면 되잖아요’라며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속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남편은 남아시아 H국 국경을 접한 인접국에서 저를 돕고, 단기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3~4년 정도 사역을 더 한 다음 철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방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를 보내 주셨다. 여름 아웃리치를 왔던 A성도였다. 그 성도와 함께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었다. A성도는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한국의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크리스천 공동체와 크리스천 기업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받았다.

지금은 A성도가 동티모르에서 했던 식음료 사업을 남아시아 H국에 적용해 보고 있다. 이정로 선교사는 인접국에서 사무를 보고, 장순애 선교사와 기숙센터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비자가 막혀서 이곳에서의 선교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길이 막히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남아시아 H국에 가지 못해도 아이들은 제가 있는 이곳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아시아 H국에 선교사업체가 세워지면서 저에게도 할 일이 생겼어요. A성도님이 영업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회계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쪽 분야 공부를 했고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남아시아 H국 인접국에서 선교사업체 회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A성도님을 보내셔서 선교사업체를 세우시고, 남아시아 H국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 하게 하시고,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이정로, 장순애 선교사 부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선교사들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다가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믿음의 삶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한숨을 쉬고, 두려워하며,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불확실성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대와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18절).

과거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도록 우리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반드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확신도 있고, 긍정적인 확신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을 계속한 사람은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를 계속한 사람은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긍정적인 확신이든 부정적인 확신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과거의 삶에 있었던 죄악의 습관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죄와 이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과거의 죄를 끊어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실패라고 한 것에도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쓰던 단어 중에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원정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행진하는 장군이 노예를 시켜서 행렬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지혜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성공한 사람에게만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미래를 허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굽아, 이스라엘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사 44:21).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사 44:9).

우리의 기억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섭리하고 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명을 계속 창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것은 틀린 말이고, 거짓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꼭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십니다. 나침판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침판이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주어진 직후입니다. 정치,

도덕, 경제, 외교가 붕괴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19~20절).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이때, 나라가 소멸될 것 같은 바로 그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을 걷고 있을 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들어가자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그곳은 피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 일은 광야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하는 것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세 번째 태도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21절).

우리 계산의 기준은 목표를 달성한 성공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산의 기준은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눈앞에 두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고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가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면 계속 시험이 주어집니다.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찬송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현재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광야와 사막과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역정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나일강 독을 따라 나 있는 갈대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모세만큼 불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잠시 보호할 수 있는 갈대상자만이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 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두고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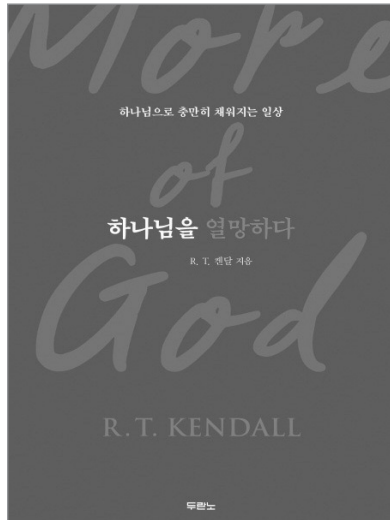
삶이 모세가 처한 삶처럼 죽음 앞에서 절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의 힘으로 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우리 힘으로 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한숨을 쉬면서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맡겨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열망하다
R. T. 켄달 저 | 두란노 | 16,000원

어린 시절부터 설날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그 이유는 할머니의 요리가 정말 일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간을 보는 입맛이 변함에 따라 요리의 맛도 변했기

때문이다.

사랑도 그러하다. 사랑은 달콤하고 아름다워 우리를 웃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사랑이 변함으로 울고 아픈기까지 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고 말한다. R. T. 켄달의 〈하나님을 열망하다〉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에도 사랑을 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함으로 자신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 때문이다. 그러나 서두에 적었듯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힘들지 않겠는가?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사랑함이 문제일 뿐이지 사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에 대한 기대는 좋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16).

성경을 통해 우리는 완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사람이 사랑할 때 경험하는 문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긴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와 관련한 좋은 예가 나온다. 사람들의 기대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답하셨다. 분노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대치에 따라 더욱 바라고 가지려던 사람들이 있었다. 결과는 비참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과 상관없었다. 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다. 저자 R. T. 켄달 목사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 많이 주실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만 열망하며 사랑하는 것’을 혼동한다고 서술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은가? 하늘로부터 오는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싶은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열망하라.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뜻’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분의 뜻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축복한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조금 이따가(또는 죽기 전에) 믿을게요”

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영원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금방 믿을 것처럼 말하면서도 영접하기를 주저하거나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심지어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도대상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해주면 좋다.

우선 전도대상자가 어르신인 경우 ‘사람은 5분 후의 일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선생님, ‘조금 이따가 믿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믿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만일 5분 후에 심장혈관이 막힌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스텐트시술 등 조치를 취해서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항공사고, 해양사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에 비교적 가볍고, 불안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예시로 들면 좋다.

기차표를 예시로 들 수도 있다. 이 예시는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전도대상자라면 그 누구에게든지 사용할 수 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표를 미리 사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표를 사다가는 그 기차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는 시점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는 시간을 놓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를 미리 믿어야 합니다. 기차는 놓쳐도 다음 기차를 타면 되지만, 인생에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직장, 연애, 결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허한 속에서 갈 길을 잃은 청년들도 있다. 그 청년들에게는 생수 되시고 쉼터 되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 효과적이다.

“목이 마르면 사람들은 물을 마십니다. 운동 후에는 물을 더 마시게 되지요. 마라톤 코스 중간 중간에 선수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 최측에서 생수를 준비해 놓습니다. 선수들은 물을 마실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 눈앞에 있는 생수를 마시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술과 오락, 섹스, 마약 등으로 허전한 마음

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이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선생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오공이 부처님한테 벗어나려다 매번 혼이 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품)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시간을 끝수룩 선생님만 손에 뱉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오래된 광고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선택은 선생님의 영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갈레성자 손정도’의 이웃사랑과 민족사랑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의 답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준 신앙의 선배가 재조명됐다. 그 주인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손정도 목사(1872~1931)다. 지난달 24일 공영방송 KBS에서 ‘갈레성자 손정도’를 제목으로 손정도 목사의 삶을 조명한 특집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한평생 이름도 빛도 없이 독립운동가로, 목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산 손정도 목사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 편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손정도 목사가 ‘갈레성자’라 불렸던 이유가 있다. 그의 삶과 목회철학이 ‘갈레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손정도 목사의 고백에 그의 일평생 철학이 잘 담겨있다.

“비단옷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갈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엉망이 된다. 나는 갈레의 삶을 살겠다.”

손정도 목사는 1872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유림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별 탈 없이 자라던 손 목사는 1902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중 한 가정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은 조씨 성을 가진 목사의 집이었다. 그날 밤 손정도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날로 손정도 목사는 상투를 자르고, 조상의 신주를

매장하고, 사당을 부숴다. 안락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비단길을 포기한 것이다. 그날 이후 손정도 목사는 친척들에게 패륜으로 낙인 찍혀 위협을 받으며 평양으로 떠나게 된다.

손정도 목사는 1910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곳에서 조성환과 안창호를 만나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일본 총리 암살음모사건으로 손정도 목사를 잡아들인다. 하얼빈에서 체포된 손정도 목사는 전기고문과 불로 지지는 고문 등 참혹한 고초를 겪는다. 그 모진 고문 앞에서도 독립운동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문이 내 몸을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는 진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2년 동안 유배생활을 마치고

동대문교회와 정동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서는 민족의 혼을 깨우는 설교를 했다. 나라를 빼앗긴 성도들에게 일본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그즈음 다시 한번 인생을 뒤바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고종과의 만남이었다. 고종은 아들 이강을 파리평화회의에 보내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사행을 추진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조력자로 손정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손정도 목사는 급히 목회활동을 정리하고 나라를 위해 고난의 길로 또다시 뛰어들었다.

손정도 목사는 독립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상해 임시정부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김구와는 무장단체 의용단과 한국노병회, 안창호와는 흥사단, 박은식과

는 대한교육회 등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었다. 손정도 목사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일이 있다. 바로 ‘호조운동’이었다. 그는 서로 도우며 자급자족하는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했다. 실제 손정도 목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조선난민들을 위해 헌납했다. 조선난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한민족의 경제자립과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온 힘을 다했다. 그곳에서도 손정도 목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이웃사랑과 민족사랑”을 부르짖었다. 평생 굶은일을 도맡아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약한 자의 편에서 서서 봉사하며 헌신한 손정도 목사의 갈레정신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질문 주고받기’와 ‘질문 만들기’

가정예배에서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가정예배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가정예배를 드리는 내내 자녀들이 눈만 깜빡이고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가정예배에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정예배를 즐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가정예배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 목표는 가족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자녀들의 가정예배 참여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 주고받기’와 ‘질문 만들기’다. 질문 주고받기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질문

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 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만약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의 삶과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퀘이커 퀘스천(Quaker Question)을 추천한다. 퀘이커 퀘스천은 퀘이커들이 서로를 알아갈 때 나눴던 네 가지 질문이다.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했던 때’,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충분히 나누면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서로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만들기는 말 그대로 질문을 만드는 활

동이다. 질문 만들기 활동을 할 때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일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서로 대화가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질문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어떤 질문을 하든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무리 쉬운 질문이라도 바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가족구성원 전체가 성경구절이나 특정 대상을 정해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면 된다. 질문을 만들어

서 주고받고, 토론하다보면 자녀들의 공감력, 창의력, 상상력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방법을 생활화하고 있을 정도다. 성경구절이나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시 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의 활동 등을 병행해도 좋다.

새해에는 자녀들과 함께 만든 질문과 토론거리가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재미있고 신나는 가정예배를 드려보자. 부모들이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자녀들이 즐겁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우리집 가정예배를 만들어보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본문 : 창세기 14장 17~20절
찬양 :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메시지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람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람은 롯을 구출하였고,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브람은 롯이 잡혀있는 ‘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은 영웅

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람을 칭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을 칭송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빕니다.”

아브람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습니다.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

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입술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고백되며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녀들은 이를 보고 들으며 동일하

게 자라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신 6:5).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1월 5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 12월 28일 토요일

하나님의 인도

출애굽기 40:36~38

이상준 목사

구름은 잡히지 않는 것이고, 방향을 정해놓고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36~37절). 이 구름은 신비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구름을 따라갈 수는 있을지라도 구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자는 임재의 구름이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훈이고, 훈련입니다. 구름이 뜨면 떠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언제든 가는 것이고, 주님이 머무시면 그 자리가 어디든 머무는 것입니다. 처

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첫째,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주저함이나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고, 둘째, 그곳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떠나라는 명령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풍 한가운데도 은신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상낙원, 구중궁궐일지라도 벼랑 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선지를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임재의 구름만 처

다보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임재의 구름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딘가에 정착하면 더 이상 하나님 임재의 구름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일까요? 약속의 땅에서는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

니다. 왜냐하면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비구름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면 비를 멈춰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8절에 ‘여정 동안’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

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그다음 인도하심의 구름을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 오류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더라도, 하나

님의 은혜의 구름을 사모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기업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인생의 여정, 역사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임재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은 출구가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로의 모든 지점에 있는 출구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출구가 없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최종 출구는 천국이고, 영원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결국 돌아올 곳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 12월 30일 월요일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불타십시오

누가복음 19:1~10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요즘 무신론 세력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구도가 있습니다. 세계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운동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정신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일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안에 있다면 화해와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를 이깁니다. 사랑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화해와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은 살롬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세력은 어떤 역사와 삶을 이끌어 갑니까?

첫째,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우선 교회를 분열케 만듭니다. 분열을 통해 힘을 잃게 하고, 주님을 믿는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을 통해 무신론의 세계를 강화시킵니다. 교인들을 분열하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살롬을 위해서 선포하

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평화를 주시지 않겠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새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해야 하지만 온누리교회 같은 큰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3년 전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 선교에 겨울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어붙은 선교에 온누리교회가 쇄빙선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보다 추운 겨울이 왔고, 영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쇄빙선이 되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정, 교회, 역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2월 31일 화요일

하나님의 용서: 사랑으로 불태우십시오

마태복음 5:33~48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한 해가 끝나는 12월 31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지 아니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하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33~37절).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맹세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

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38~39절).

이 말씀은 존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은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를 행할 때 악한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저보다 큰 자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40~42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옷을 잃지만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귀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오 하는데 십리를 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이들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44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더 큰 존재, 더 큰 사랑의 존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창고, 은혜의 창고, 존재의 창고가 차고 넘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원수와 관계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관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원수가 된 관계에 놓였을 때, 그 가치판단 및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시무예배에서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 임직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2020년 시무예배 12개 기관 900명 참석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이 시무예배를 드리고 2020년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월 3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시무예배에는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Acts29비전빌리지, CGNTV,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에셀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미션) 임

직원 900명이 참석했다. 2020년 시무예배는 정진호 장로 대표기도, 남성 4중창단 크로스의 특선, 각 기관 별 소개 및 구호제창,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진한성 간사(양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하는 한 해를 보내겠다”고 했고,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200만 이주민들에게 함께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월 세미나

‘구약일독 5일 완성’ 세미나가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황사라 목사(지구촌교회 협동목사)가 강의한다. 새해 성경일독을 결심한 성도 성경의 맥을 잡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성경 읽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21만 원. 1월 6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275

복음의 전함, 아프리카 간다!

2월 17일~3월 1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우텡

전도사역본부와 협력하고 있는 복음광고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하 복음의 전함)이 ‘세계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 마지막 목적지 아프리카로 떠난다.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It's okay with Jesus!’를 주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우텡(Gauteng)에서 사역한다.

복음의 전함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은 2016년 북아메리카를 시작으로 2017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2018년 유럽, 2019년 남아메리카를 거쳐 2020년 마지막 목적지 아프리카까지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다.

주요사역은 복음광고 집행, 다국어 전도지 10만 부 지원, 거리전도 등이다. 이외에도 복음의 전함은 광고 캠페인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군부대 복음캠퍼서 보내기 등의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6673-0091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웃사랑 송년 초청예배 ‘행복한 동행’

지난달 29일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이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일대 독거노인들과 봉사자들을 초청해서 이웃사랑 송년 초청예배 ‘행복한 동행’을 드렸다.

이날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

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가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했다.

박순길 장로(이웃사랑팀 담당)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8기’ 참가자 모집

서류마감 20년 1월 8일, 면접 1월 11일

대학청년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1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FA 18기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1년 이상)으로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5세 이하(85년생), 세례교인만 지원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추천서(온누리목회자, 공동체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신청양식은 두란노

해외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1월 8일(수)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면접은 1월 11일(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청년부 FA선교사로 최종선발 되면 내년 3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일본, 중동 등지에서 사역하게 된다. 문의: 070-4464-8105

후원: 하나은행 573-91009-6280 5(FA무브먼트)

/ 홍하영 기자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예배,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섬김

새사람사역팀에서 예배,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등으로 재소자들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정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286-0078

간중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야

처음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할 즈음 매일 바뀌는 사역자, 그날그날 비슷한 수업 내용, 반복되는 교육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라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의 문을 닫았다. 닫힌 내 마음이 열린 건 우리를 돕는 사역자들 때문이었다. 우리를 생각하고, 살피고, 위해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를 교육하러 오시는 사역자님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사비를 들여가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범죄자인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다.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수업에 귀 기울였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나를 보며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놀란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끝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용 생활에 임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를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이끌어주신 양육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홍민을 형제(소망교도소 재소자)

일대일 양육자반 훈련생 모집

양재 온누리교회 일대일 양육자반 훈련생을 모집한다. 박동혁 장로반은 2020년 2월 2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2시 도곡교육관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김대진 목사반은 2월 9일

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 이스라엘홀에서 시작한다. 수강신청은 주일 오전 9시부터 2월 2일까지다. 주일 오후반은 2월 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70-7349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720	김소연	평택	1138742	양지연	송파A	1138764	김경미	인천 서누리	1138785	최선희	서초C
1138721	고병현	평택	1138743	온현수	Bridge33+	1138765	박혁상	양재	1138786	최병윤	하나
1138722	이금희	영등포구로	1138744	우선철	성동광진	1138766	김혜선	인천 서누리	1138798	정예진	강동 프라미스
1138723	정지숙	중종로	1138745	김경희	중종로	1138767	채수민	인천 동누리	1138799	최찬미	강동 프라미스
1138724	유재원	용산	1138746	김태령	김	1138768	서형훈	여호수아	1138800	배진국	성북
1138725	김현진	용산	1138747	송은선	SNS	1138769	최윤서	여호수아	1138802	이하늘	서브
1138726	김영재	송파A	1138748	정민정	SNS	1138770	이지은	여호수아	1138803	전정범	Bridge33+
1138727	하전수	양재	1138749	강신구	SNS	1138771	이영호	여호수아	1138805	김선아	인천 서누리
1138728	박서희	서초C	1138750	이승연	SNS	1138772	성재원	여호수아	1138809	강동희	대전 동누리
1138729	이정희	강남E	1138751	임지선	SNS	1138773	이종희	여호수아	1138812	유소망	요셉
1138730	박 현	부천 소망	1138752	김현진	SNS	1138774	염신혜	여호수아	1138813	구은택	요셉
1138734	정혜란	Bridge33+	1138753	신미정	송파A	1138775	이정훈	여호수아	1138814	피성희	인천 미추홀
1138735	조수진	부천 사랑	1138754	한명란	인천 서누리	1138776	한세정	여호수아	1138815	주인숙	부천 화명
1138736	정영미	경기A	1138755	이성철	인천 서누리	1138777	윤정순	동대문중앙	1138816	장정자	양재
1138737	양은혜	부천 소망	1138756	홍미희	남양주A	1138778	윤이경	요셉	1138817	표명철	갈렐
1138738	김양임	강남B	1138759	이순환	분당A	1138779	민준홍	요셉	1138818	오현교	CH630
1138739	이윤철	OEM	1138760	서여울	부천 믿음	1138780	박시원	허브	1138819	이종희	요셉
1138740	이명대	OEM	1138761	방숙영	인천 서누리	1138781	김양환	강남B	1138820	우형식	여호수아
1138741	Liam Jnes	OEM	1138762	정기서	동대문중앙	1138782	왕성원	허브			

